

2015년 7월 27일 오늘의 아침편지

서른 살부터 마흔 살까지  
30歳から、40歳まで

서른 살부터 마흔 살까지  
30歳から40歳まで

그 시기를 관통하고서 진정한 나 자신이  
その時期を貫通して、本当の私自身に

되었다. 나에게 부여된 역할, 이미 수립된  
なる。私に与えられた役割、すでに樹立された

기존 모델을 체념함으로써, 칭찬 받기를 포기하고  
基準モデルをあきらめ、称賛を受けることを放棄し

고독과 몰이해를 받아들임으로써 그리되었다.  
孤独と無理解を受け入れ、そうだった。

그렇다, 나는 마흔이 다 되어서야 내가  
そう、私は40になって、私が

얼마나 비긍정 속에서 살아왔는지,  
どれだけ、非肯定の中で生きてきたのか

내가 얼마나 어린애였는지  
私がどれだけ、子供だったか

깨달았다.  
悟った。

- 자크 살로메의 《자신으로 존재하는 용기》 중에서 -  
- ジャック・サロメの〈自分で存在する勇氣〉より -

\* 서른부터 마흔까지.  
\* 30歳から40歳まで

계절로 치면 뜨거운 여름입니다.  
季節で言えば、暑い夏です

작열하는 태양별에 굶은비도 많고 태풍도 지나갑니다.  
灼熱の太陽光に、じめじめの雨も多く、台風も過ぎ去ります

그러나 이 계절을 거치면서 오곡백과는 영급니다.  
しかし、この季節を過ぎながら、五穀百果は熟します

뜨거운 햇볕 아래서 흘렸던 땀이 토실한 열매로  
暑い日差しの下で、流れた汗がまるまるとした果実で

돌아옵니다. 어린아이처럼 기쁨으로,  
返ってきます。子供のように喜びで

즐겁고 재미있게 여름을 나면  
楽しく面白く夏を過ごせば

가을이 풍요롭습니다.  
秋は豊かです。

서른

[수사] [관형사] 三十. (=삼십)

마흔

[수사] [관형사] 四十.

관통 (貫通)

[명사] 貫通.

じゅりつ [樹立] 발음 재생

수립.

체념 (諦念)

[명사]

諦念.

道理を悟る心.

断念; 諦め.

칭찬 (稱讚)

[명사] 称赞[賞賛](しょうさん).

긋다

[형용사]

(언짢다) (物事が)悪い; よくない; 不吉だ; 忌まわし...

(날씨가) 天気が悪い; じめじめする.

[자동사] (눈이 멀다) 目が見えなくなる.

비

[명사] 雨.

여물다

[자동사]

よく実る; 熟する.

(ことが) うまく行く.

2015년 7월 28일 오늘의 아침편지

마음을 꺼내 놓는다  
心を取り出しておく

감사는 품는 게  
感謝は抱くのでは

아니라 꺼내 놓는 것.  
なく、取り出しておくこと

누군가에게 당신의 좋은 마음을  
誰かにあななの良い心を

전한다는 것은 얼마나 아름다운가.  
伝えることは、どれだけ美しいか

크든 작든 상관없이 당신의 정성이 상대에게  
大きくても小さくても関係なくあなたの真心が相手に

가는 동안 당신이 가장 먼저 기쁠 것이다.  
行く間、あなたが一番最初に喜ぶのだ

당신이 안녕 하고 손을 흔들 때 이미  
あなたが挨拶して、手を振るときすでに

상대는 환하다. 그것을 보는 나 역시  
相手は明るい。それを見る私もまた

환해지는 것을 느낀다.  
明るくなるのを感じる

- 변종모의 《같은 시간에 우린 어찌면》 중에서 -  
- ビョン・ジョンモの〈同じ時間に我々はもしかしたら〉より -

\* 감사는 마음의 표시입니다.  
\* 感謝は心の表示です

마음을 꺼내놓는 것, 내 마음을 상대에게  
心を取り出しておくこと、私の心を相手に

드러내 보여주는 것입니다. 서로 좋은 마음을  
現し見せることです。お互いよい心を

주고 받으며 산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やり取りしながら生きるのは、どれだけ重要なのかを

새삼 깨닫습니다. 안녕 하는 간단한 인사  
今更気づきました。こんにちはという簡単な挨拶

한마디에도 온마음이 녹아 있고  
一言に、すべての心が溶けていて

감사가 담겨 있습니다.  
感謝が詰まっています

꺼내다

[타동사]

持ち出す; 引き出す.

(中のものを)取り出す.

(話を)切り出す; 始める.

정성 (精誠)

[명사] 精誠; 真心; 丹念; 誠.

환하다

[형용사]

明るい.

広広としている; (前方が)ぱっと開けている; 見通(み...

(中身や織り目などが)透けて見える.

새삼

[부사] 今更; 今更のように; こと新しく. (=새삼스레)

2015년 7월 29일 오늘의 아침편지

나침반마저 없을 때  
羅針盤さえない時

노련한 여행자는  
老練な旅行者は

늘 나침반을 지니고 다닌다.  
ずっと羅針盤をもってまわる

자주 사용하지는 않더라도 일단 꺼내놓으면  
よく使用することはなくても、一旦取り出せば

금방 길을 찾을 수 있기 때문이다.  
すぐに道を探ることができるからだ

내가 길을 잃지 않도록 도운  
私が道を失わないように助ける

가장 중요한 안내자는  
一番重要な案内者は

기도였다.  
祈りだった

- 제임스 패커의 《나이 드는 내가 좋다》 중에서 -  
- ジェームズ・パッカーの〈歳をとる私が好きだ〉 -

\* 사노라면  
\*生きてみれば

때때로 길을 잃어버립니다.  
時々道を失ってしまいます

어디로 가야할 지 방향을 못찾고 헤맬니다.  
どこに行かなければならないか、方向をつかめずさまよいます

나침반마저 없을 때, 마지막으로 매달릴 수 있는 것이  
羅針盤さえない時、最後にすることができるのが

명상과 기도입니다. 깊은 명상과 기도가  
瞑想と祈りです。深い瞑想と祈りが

나를 강하게 붙잡아 줍니다.  
私を強くつかんでくれます

길을 열어줍니다.  
道を開いてくれます

らしんばん [羅針盤] 발음 재생  
나침반; 컴퍼스. (=羅針儀)

마저

[부사] (残さず)全部; (ついでに)みんな; すっかり; 残らず.  
[조사] ‘…までも; …をも; …さえ; …すら’ の意の補助詞.

노련하다 (老鍊—)

[형용사] 老練だ; 老巧だ.

지니다

[타동사]

(간직하다) (物を身につけて)持つ.

(갖추다) (人格などを)身に備える; つける.

(보전하다) (原型をそのままに)保つ.

다니다

[자동사]

通う.

(왕복) (一定の場所を)行き来する.

[타동사] (ある目的で)歩き回る; …して回る.

꺼내다

[타동사]

持ち出す; 引き出す.

(中のものを)取り出す.

(話を)切り出す; 始める.

매달리다

[자동사]

[ '매달다' の受け身] 吊られる; ぶら下げられる.

(늘어짐) ぶら下がる; 取り継る; しがみつく.

(따라붙다) すぎる; くつつく.

2015년 7월 30일 오늘의 아침편지

인생의 투자  
人生の投資

인생에도 수업료가 있다.  
人生にも授業料がある

귀한 것을 얻기 위해서는  
貴重なことを得るためには

반드시 대가를 치러야 하고  
必ず対価を払わなければならない

기약이 없는 인내를 해야 할 때도 있다.  
契約に無い忍耐をしなければならない時もある

대가를 크게 치를수록, 오래 기다리고  
対価を大きく支払うほど、長く待って

오래 배울수록, 인생은 깊고 넓어진다.  
長く学ぶほど、人生は深く広くなる

- 이애경의 《나를 어디에 두고 온 걸까》 중에서 -  
- イ・エギョンの〈私をどこに置いてきたのか〉より -

\* 세상에 쉬운 일이 없습니다.  
\* 世の中に簡単なことはありません

마냥 거저 얻어지는 것도 없습니다.  
ひたすら無料で得ることもありません

응당한 수업료를 내고 기술도 배우고  
しかるべき授業料を払って、技術も学び

유학도 가고 박사 과정도 열심히 밟습니다.  
留学にも行って、博士課程も熱心に踏みます

좋은 기술, 큰 공부일수록 수업료도 많습니다.  
いい技術、大きな勉強であるほど授業料も多いです

어렵고 힘든 고난이 닥치거든, 수업료 없이  
難しくつらい苦難が近づいたら、授業料なく

큰 공부하고 있다고 생각하십시오.  
大きな勉強をしていたと考えてください

자기 인생의 빛나는 투사가  
自分の人生が輝く投資に

될 수 있습니다.  
なることができます

치르다  
[타동사]

(借金や代金を)支払う.

ある事をやりのける; 執り行う.

기약 (期約)

[명사] 約束すること; ちぎり.

마냥

[부사]

ひたすら; 専ら; 全く.

充分; たらふく; 思う存分に; 十二分.

거저

[부사] ただで; 無料で.

しかるべき罰を受ける 발음 재생 (표제어:응당)

응당한 벌을 받다

닥치다1

[자동사] 近づく; 近寄る; 切迫する.



2015년 7월 31일 보낸 편지입니다.

희망이란  
希望とは

희망이란  
希望とは

본래 있다고도 할 수 없고 없다고도 할 수 없다.  
本来あるとも言えず、ないとも言えない

그것은 마치 땅 위의 길과 같은 것이다.  
それは、まるで大地の上の道のようにだ

본래 땅 위에는 길이 없었다.  
本来、大地の上に道はなかった

한 사람이 먼저 가고  
一人がまず行って

걸어가는 사람이 많아지면  
歩く人が多くなれば

그것이 곧 길이 되는 것이다.  
それがまさに道になるのだ

- 루쉰의 《고향》 중에서 -  
- 魯迅の〈故郷〉より -

\* 그렇습니다.  
\* そうです

희망은 처음부터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希望は最初からあったものではありません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도 생겨나는 것이 희망입니다.  
何もないところにも生じるのが希望です

희망은 희망을 갖는 사람에게만 존재합니다.  
希望は希望を持つ人にだけ存在します

희망이 있다고 믿는 사람에게는 희망이 있고,  
希望があると信じる人には希望があり

희망 같은 것은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에게  
希望のようなものはないと考える人には

실제로도 희망은 없습니다.  
実際にも希望ありません

(2001년 8월1일 앙코르메일)  
(2001年8月1日アンコールメール)

2015년 8월 1일 보낸 편지입니다.

매주 토요일엔 독자가 쓴 아침편지를 배달해드립니다  
毎週土曜日には、読者が書いた朝の手紙を配達いたします。

오늘은 한상윤님께서 보내주신 아침편지입니다  
今日は、ハン・サンユンさまから、送っていただいた朝の手紙です。

설레는 일을 시작하자  
ときめくことを始めよう

추상적이고 거창한 구호로  
抽象的で、誇張したスローガンに

삶이 행복해지고 재미있어지는 것이 아니다.  
人生が幸せになって、面白くなるのではない

그 어떤 위대한 가치나 이데올로기도  
そのどんな偉大な価値や、イデオロギーも

내 삶에 구체적으로 경험되지 않으면 실천되지 않는다.  
私の人生で具体的に経験されなければ、実践にならない

결정적인 순간에 지식인이 비겁해지는 이유는  
決定的な瞬間に、知識人が臆病になる理由は

바로 이 구체성이 빠져 있기 때문이다.  
まさに、この具体性が抜けているからだ

- 김정운의 《남자의 물건》 중에서 -  
- キム・ジョンウンの〈男の物件〉より -

\* 내가 좋아하는 일,  
\* 私が好きなこと

가슴 설레는 일을 계획하고 바로 시작해 보십시오.  
胸がときめくことを企画して、まさに初めて見てください

한 번 해보세요. 시작해야 변화할 수 있습니다.  
一度してみてください。初めてこそ変化できます

행복해질 수 있습니다.  
幸せになることができます

설레다  
[자동사]  
はやる; そわつく; ときめく; 高鳴る.  
心が浮ついて胸騒ぎする.  
じっと一所にいたたまれなくてうごつく.

추상적  
[관형사] [명사] 抽象的; アブストラクト.  
구호 (口號)

[명사] 叫び声; 掛け声; スローガン.

이데올로기 ((독일어) Ideologie)

[명사] イデオロギー. (=이념)

지식인

20150801.txt

[명사] 知識人.  
비겁하다 (卑怯—)  
[형용사] 卑怯だ.

2015년 8월 3일 보낸 편지입니다.

눈부신 깨달음의 빛  
まぶしい悟りの光

지금 당신이 겪는 시련을 통해  
今あなたが経験している試練を通じ

자신의 진정한 모습을 발견하기를.  
自分の本当の姿を発見するのを

지금 당신이 지나고 있는 끔찍한 고통의  
今あなたが経験している真っ暗な苦痛の

터널 끝에서 눈부신 깨달음의 빛을 만나기를.  
トンネルの終わりで、まぶしい悟りの光に会うのを

그 여정 끝에 희망을 만나기를. 그리고  
その旅情の終わりに希望に会うのを。そして

괴로움의 폭풍이 지나가고 난 후에  
苦しみの暴風が過ぎた後に

더 없는 평온과 기쁨을 누리기를.  
またとない平穏と喜びを享受することを

- 대프니 로즈 킹마의 《인생이 우리를 위해 준비해 놓은 것들》 중에서 -  
- ダフニー・ローズ・キングマの〈人生が我々のために準備して置いたこと〉より -

\* 세상의 모든 것이  
\* 世の中のすべてのことが

눈부신 깨달음의 재료입니다.  
まぶしい悟りの材料です

시련, 고통, 괴로움의 폭풍도 마찬가지입니다.  
試練、苦痛、苦しみの暴風も同じです

그때는 견딜 수 없는 시련이었고 고통이었으나  
その時は、耐えきれない試練で、苦痛があっても

한 순간 깨닫고 나면 빛으로 변합니다.  
一瞬悟ってみれば、まぶしく変わります

깨달아야만 비로소 빛이 됩니다.  
悟ってこそ、ようやく光ります

희망이 되고 기쁨이 됩니다.  
希望になって喜びになります

(2011년 6월6일자 앙코르메일)  
(2011年6月6日付アンコールメール)

깜깜하다2  
[형용사]

20150803.txt

真っ暗だ. [큰말] 껌껌하다.  
希望が持てない; 前途が暗い.  
폭풍 (暴風)  
[명사] 暴風; 嵐.

2015년 8월 4일 오늘의 아침편지

비노바 바베  
ヴィノバ・バーヴェ

“당신의 사랑과 믿음을 보며  
“あなたの愛と悟りを見ながら

나의 눈에는 기쁨의 눈물이 흐르고 있습니다.  
私の目には喜びの涙が流れています

나는 그런 사랑과 믿음을 받을 만한 자격이  
私はこのような愛と、信頼を受ける自覚が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습니다.  
あるようでもあり、無いようでもあります

그러나 우리를 향한 당신의 사랑과 믿음이  
しかし我々を向いた、あなたの愛と信頼が

당신에게 무한한 유익이 되리라는 것은  
あなたに無限な有益なるだろうことは

분명합니다. 당신은 위대한 섬김의  
明白です。あなたは偉大な奉仕の

도구가 될 것입니다.”  
道具になるでしょう”

- 비노바 바베의 《사랑의 힘이 세상을 지배할 것이다》 중에서 -  
- ヴィノバ・バーヴェの〈愛の力が世の中を支配するだろう〉より -

\* '위대한 섬김의 도구'  
\* '偉大な奉仕の道具'

간디가 비노바 바베에게 한 찬사의 말입니다.  
ガンジーがヴィノバ・バーヴェに行った称賛の言葉です

비노바 바베는 간디의 제자로 '부단운동'을 통해  
ヴィノバ・バーヴェはガンジーの弟子で'不断運動'を通じ

인도 부자들로부터 500만 에이커의 땅을 헌납받아  
インドの資産家たちから、50万エーカーの土地の献納を受け

가난한 사람에게 돌려준 '사랑 공동체'의 상징 인물입니다.  
貧しい人たちに返した'愛の共同体'の象徴人物です

사람을 섬기는 것보다 아름다운 것은 없습니다.  
人につかえるより、美しいことはありません

물질뿐만이 아닌 마음으로, 삶으로, 타인을  
物質だけではない心で、人生で、他人に

섬기는 도구가 될 수 있다면, 그거야말로  
奉仕の道具になることができれば、それこそ

20150804.txt

진정 ' 위대한 섬김의 도구' 입니다.  
本当の'偉大な奉仕の道具'です

(2011년 6월2일자 양코르메일)  
(2011年6月2日付アンコールメール)

2015년 8월 5일 오늘의 아침편지

얼음 없는 세상  
氷のない世界

지구에 얼음이 없어진다면?  
地球に氷がなくなれば?

이는 나무, 꽃, 온갖 동물이 없는 세상을  
これは、木、花、あらゆる動物がない世の中を

떠올리는 것만큼이나 상상하기 어렵다.  
思い浮かべることくらい、想像が難しい

실제로 얼음이 사라지면 지구와 인류  
実際に氷がなくなれば、地球と人類

모두가 극적인 파국에 이르고 말 것이다.  
全てが、劇的な破局に至ってしまうのだ

우리는 세계 인구의 4분의 1을 먹여 살리는  
我々は世界人口の4分の1を養う

식수와 농업용수를 산에서 흘러내리는  
飲料水と、農業用水を山から流れる

빙하에서 얻고 있다.  
氷河から得ている

- 헨리 폴락의 《얼음 없는 세상》 중에서 -  
- ヘンリー・ポロックの〈氷のない世界〉より -

\* 새삼스러운 이야기는 아닙니다.  
\* 目新しい話ではありません

얼음 없는 세상이 점차 현실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氷の無い世界が、次第に現実になっています

마땅히 있어야 할 게 없어지는 것이 재앙입니다.  
当然あるべきものがなくなる災難です

쌀이 있어야 할 곳에 쌀이 한 톨도 없거나,  
米がなければならぬところに、米一粒もなくなったり

희망이 있어야 할 곳에 희망이 없거나,  
希望がなければならぬところに、希望が無くなったり

사랑이 있어야 할 곳에 사랑이 없으면  
愛がなければならぬところに、愛がなければ

그것이 재앙이고 위기입니다.  
それが災難で危機です

(2011년 6월8일자 앙코르메일)  
(2011年6月8日付アンコールメール)



얼음

[명사]

氷; アイス.

凍傷になること.

온갖

[관형사] (ありと) あらゆる; すべての; 万の [아어(雅語)].

떠오르다

[자동사]

浮かび上がる.

浮かぶ.

(위로) 沈んだものが浮き上がる.

극적 (劇的)

[명사] 劇的; ドラマチック.

농업용수

[명사] 農業用水.

새삼스럽다

[형용사]

(생각나다) 今更のようだ; こと新しい.

(들추다) 事新しい; 今更でもない.

점차 (漸次)

[부사] 漸次; 徐徐に; 逐次; 次第に; だんだん; ようや...

마땅히

[부사] 当然; 正に; すべからく.

재앙 (災殃)

[명사] 災殃; 災い; 災難.

2015년 8월 6일 오늘의 아침편지

깜빡 졸다가...  
うとうと居眠りして

빠르다는 게 뭐지?  
早いのは何だろうか?

밥을 10분 안에 다 먹는 것?  
ご飯を10分以内ですべて食べること?

제한속도를 10퍼센트쯤 넘기는 것?  
制限速度を10パーセントくらい超えること?

문득 사고를 당한 날 엄청나게 엑셀을 밟았던 기억이  
ふと事故に会った日、とてつもないとてつもなくアクセルを踏んだ記憶が

떠올랐습니다. 잠도 줄여가며 원고를 쓰고  
浮かびました。睡眠を減らしながら原稿を書いて

집으로 돌아가다가 하필 그 순간 깜빡,  
家に帰ったが、よりによってその瞬間うっかり

정말 아주 깜빡 졸았습니다.  
本当に、とてもうっかり寝ました。

나의 질주를 더 이상 감당할 수 없던  
私の疾走をこれ以上、手におえなかった

내 삶이 급브레이크를 밟았고,  
私の人生が、急ブレーキを踏んで

속도를 줄이지 못한 나는  
速度を落とせなかった私は

내동댕이쳐졌습니다.  
放り出さされました。

- 유명만의 《곡선이 이긴다》 중에서 -  
- ユ・ミョンマンの〈曲線が勝つ〉より -

\* 운전을 하다 깜박 졸았던 경험들이  
\* 運転して、うっかり眠った経験が

더러 있을 것입니다. 큰일 날 뻔한 순간입니다.  
いくらかあるでしょう。大ごとになるところだった瞬間です

운전하다가 깜박 조는 지경에 이르면 절대 안됩니다.  
運転して、うっかり眠る状況に至っては絶対にいけません

그때는 얼른 멈춰 잠시 눈을 붙이고 가야합니다.  
その時は、すぐに止まってしばらく目を閉じて行かなければなりません

그냥 달리면 모든 것이 강제로 멈춰버려  
ただ走れば、すべてのことが強制で止まって

삶이 내동댕이쳐질 수 있습니다.  
人生が投げ出されることもあります

자신의 삶은 말할 것도 없고  
自分の人生は言うまでもなく

다른 사람의 삶조차도.  
他人の人生さえも

(2011년 6월7일자 앙코르메일)  
(2011年6月7日付アンコールメール)

うつうつと眠る 발음 재생 (표제어: うつうつ)

깜빡깜빡 졸다.

制限速度 발음 재생 (표제어: せいげん)

제한 속도

문득

[부사] ある考えが突然に浮かぶさま: ふいと; ふと; はっと; つ...

사고 (事故)

[명사] 事故.

하필 (何必)

[부사] 何で; よりによって; ことさら; とりわけ; 何の必要があ...

질주 (疾走)

[명사] 疾走; 疾駆.

手に負えない 발음 재생 (표제어: おえない)

감당할 수 없다

더러

[부사]

いくらか.

たまに; 時々; 時折; まれに.

2015년 8월 7일 보낸 편지입니다. 고도원의 아침편지

영적 휴식  
靈的休息

영적 휴식은  
靈的休息は

당신의 마음과 능력,  
あなたの心と能力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  
ほかの人々との関係

세상과의 관계에 심오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世の中との関係に、奥深い影響をいきわたらせることができる

세상은 우리가 알고 있는 것보다 훨씬 크고 넓다.  
世の中は我々がわかっていることより、一層大きく広い

일부 과학자는 우리가 영적일 수 밖에 없도록  
一部科学者は、我々が靈的であるしかないように

만들어져 있다고 주장한다. 실제로 기도와  
つくられていると主張する。実際に祈りと

명상은 두뇌를 물리적으로 변화시킨다.  
瞑想は、頭脳を物理的に変化させる。

- 매튜 에들런드의 《휴식》 중에서 -  
- マシュー・エドルンドの〈休息〉より -

\* 사람은 영적 존재입니다.  
\* 人は靈的存在です

몸 안에 영혼이 있고, 영혼이 우리를 끌고 갑니다.  
体の中に魂があって、魂が我々を引っ張っていきます

영혼이 메마르면 몸도 마음도 메말라 버립니다.  
魂が枯れれば、体も心も枯れてしまいます

영혼이 지치면 몸도 마음도 삶도 무너집니다.  
魂もくたびれれば、体も心も人生も崩れます

영혼이 메마르지 않도록, 지치지 않도록  
魂が枯れないように、くたびれないように

물을 주어야 합니다. 기도와 명상은  
水を与えなければなりません。祈りと瞑想は

내 영혼에 물을 주는 시간입니다.  
私の魂に水を与える時間です。

최고의 영적 휴식입니다.  
最高の靈的休息です

(2011년 6월15일자 앙코르메일)  
(2011年6月15日付アンコールメール)

심오하다 (深奥—)

[형용사] 深奥だ; 奥深い.

미치다<sup>2</sup>

[자동사]

及ぶ.

(달하다) (ある範囲に)達する; わたる; 行き届く.

[타동사] 及ぼす; 行き渡らせる.

메마르다

[형용사]

(土地가)干からびている; (地味가)やせている.

肌の脂気が抜けて滑らかでない.

(人情に)潤いがない.

지치다<sup>1</sup>

[자동사] くだびれる; ばてる[속어]; (へとへとに)疲れる; へたばる[속어].

2015년 8월 8일 아침편지

매주 토요일엔 독자가 쓴 아침편지를 배달해드립니다  
毎週土曜日には、読者が書いた朝の手紙を配達いたします。

오늘은 이연욱님께서 보내주신 아침편지입니다  
今日は、イ・ヨヌクさまから、送っていただいた朝の手紙です。

서투른 새, 노련한 새  
不器用な鳥、老練な鳥

떠날 때를 보면  
飛び立つときを見れば

떠나고 난 후에 보면  
飛び立った後を見れば

떠난 새가 제대로 보인다.  
飛び立った鳥がちゃんと見える

서투른 새는  
不器用な鳥は

나뭇가지를 요란하게 흔들고 떠난다.  
木の枝をけたたましく揺らして飛び立つ

떠난 후 가지가 한참 흔들린다.  
飛び立った後枝が、しばらく揺れる

노련한 새는  
老練な鳥は

가지가 눈치 채지 못하게  
枝が、気づかれないように

모르게 흔적도 없이 조용히 떠난다.  
わからないように、痕跡もなく静かに飛び立つ

떠나가도  
飛び立っても

늘 앉아있는 듯한 착각 속에서  
ずっと座っているような錯覚の中で

가지에게 포근한 무게를 느끼게 한다.  
枝に、柔らかい重さを感じさせる

- 방우달의 《나는 아침마다 다림질된다》 중에서 -  
- パン・ウダルの〈私は毎朝アイロンになる〉 -

\* 인간관계에서  
\* 人間関係で

만남은 무엇보다 소중한입니다.  
出会いは何より大切です

20150808.txt

그 보다 더 중요한 것은 헤어짐입니다.  
これよりさらに重要なことが別れです

앞모습보다 뒷모습이 더 아름답기가 어렵기 때문입니다.  
前の姿より、後ろ姿がさらに美しいのが難しいからです

나는 나뭇가지를 얼마나 흔들었는지, 나는 가지에게  
私は、木の枝をどれだけ揺らしたのか、私は枝に

어떤 느낌을 줬는지, 나는 어떤 느낌을 받았는지  
どんな感じを与えたのか、私はどんな感じを受けたのか

돌이켜 보며 용서를 하고 받고 상처도 치유하며  
振り返ってみて許しを乞うて、傷を治癒しながら

살아야 합니다. 처음부터 노련한 새는  
生きなければなりません。最初から老練な鳥は

없기 때문입니다.  
ないからです

서투르다  
[형용사] (솜씨가) 下手だ; 不[無]器用だ; まずい; つたない; 不得手(...  
요란 (搖亂·擾亂)

[명사]  
騒々しく取り乱れていること.  
大げさなこと; 仰仰[麗麗]しいこと.

한참

[명사]

昔, 兩駅間の路程.

しばらくの間. (=한동안)

わたしは気づかれないように2階へこっそり上がろうとした 발음 재생

나는 눈치 채지 못하게 계단을 살짝 올라가려고 했다

포근하다

[형용사]

柔らかい; ふくよかだ; ふんわりしている.

(冬の気候が)風もなく暖かい.

(雰囲氣などが)和やかだ.

振り返って見る 발음 재생 (표제어: 돌이키다)

돌이켜 보다